

정시확대 만이 답은 아니다

- 일 시 2019년 11월 6일(수) 오후 10시 30분
- 장 소 국회본청 223호

□ 행사개요

10:30~10:35

인사말

- 참석자 소개
- 심상정대표 인사말

10:35~11:30

대입제도 개편 당사자 간담회

- 사회 : 권태홍(정의당 사무총장)
 - 발언 :
 - 김승환(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, 전라북도 교육감)
 - 여영국 국회의원(정의당 교육위)
 - 전경원(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)
 - 이윤경(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)
 - 구본창(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정책국장)
 - 김홍중(올가교육원장, 팟캐스트 교육진담 진행자)
 - 토론 :
-

정의당 대입제도 개편의 방향과 원칙

1 대입제도 개편의 방향

첫째, 학부모의 영향력을 줄여야

공정이란, 부모나 외부 영향 등 세습이 없는 것. 이 측면에서 학종과 수능을 들여다 보고,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.

둘째, 단순하고 투명해야

'입시가 너무 복잡하다' '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'는 국민이 매우 많음. 최대한 단순하고 투명한 제도를 모색해야

셋째, 원인을 해소해야

수십 년 동안 수십 번 고쳤으나, 나아지지 않음. 고교 서열과 대학 서열이 지속되는 한 금수저 그들만의 리그도, 입시경쟁도 지속됨. 구조 변화를 동반하지 않는 제도개선은 성공할 수 없음

2 대입제도 개편의 3가지 원칙

첫째, 비교과 대수술로 학종 개선

- 금수저 요인 제거 : 학생부 수상경력 기재 금지, 자기소개서 폐지
- 학종 평가기준과 선발결과 공개로 투명성 제고
- 정시 확대는 곤란. 최소 30%로 늘어나기에, 더 확대하기 보다 정책효과를 살펴보는 편이 타당
 - * 정시 또한 금수저 요인 있음. 그리고 특목고와 자사고, 강남, 재수생이 유리

둘째, 계층과 지역 할당 확대 등 고른 기회 확대

- 부모 영향력 적은 사회적 약자, 일반고, 지방 학생 등에 적극적 우대조치
- 13.7% 수준인 고른 기회 전형을 확대하고 지역인재 전형을 늘려야
- 관련 전형의 현재

고른기회 전형	2021학년도 47,606명(13.7%)	사회적 약자
지역균형선발 전형	서울대 2022학년도 652명(19.4%)	일반고
지역인재 전형	2021학년도 16,521명(4.8%)	지역 학생

* Affirmative action : 미국도 시행

셋째, 학교서열화 개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

- 대학 및 고교서열 + 대입제도 + 부모 영향력 ⇨ 그들만의 리그 형성
-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,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, 학력 학벌 차별금지법, 학력간 임금격차 해소 및 직업교육 강화

(대선) 2017년 대선에서 '기회균등 대입전형 50%' 공약

- 자사고, 외고,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
- 고른 기회 대입전형을 11%에서 22%로 확대,
- 주요 대학은 고른 기회와 지역균형 합하여 50% 되도록 행재정 지원
- 전형유형을 수능, 학생부교과, 학생부종합 등 3가지로 간소화
- 수능 절대평가, 학력·학벌 차별금지법 제정

보 도 자 료

노동의 희망
시민의 꿈 **정의당** 정책위원회

배 포	2019년 10월 25일(금)	사 용	배포 즉시	분 량	6쪽
담 당	송경원 정책위원 (☎02-788-3218, songkw1127@gmail.com)				

정시 확대, 누구에게 유리한가 보고서와 논문 등 살펴보니.. 고소득, 강남에 유리 “작년의 사회적 합의를 넘지 않는 것이 타당”

- 보고서와 논문 등을 살펴본 결과, 정시 확대가 고소득층과 강남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.
- 정의당 정책위원회(의장 박원석)는 정시 확대가 누구에게 유리한 것인지 몇 가지 자료로 살펴본 결과를 제시했다.
 - 교육감협의회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은 지난 2월, 대입개선 1차 연구결과 『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대입제도 개선방안 연구』 보고서를 냈다. 2016~18학년도 지역별 서울대 정시모집 입학생 분포를 선보였는데, “거대한 사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” 서울의 강남 3구와 양천구 학생이 24.5%라고 밝혔다. “서울대에 정시모집으로 합격한 학생 4명 중 1명이 강남 또는 목동 출신”이라는 것이다.
 - 또한 “강남구에서만 지난 3년간 347명이 서울대학교에 정시로 입학한 반면,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대 광역시 합격생을 모두 합해도 325명에 불과”하다고 지적했다. 강남 학생이 정시로 서울대에 많이 입학했다는 것이다.
 - 다른 데이터는 민주당 박경미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다. 2017~19학년도 서울대 입학생을 보면, 서울 강남구 소재 학교의 학생이 가장 많다. 그리고 강남 학생들은 정시 입학생의 11.9%, 수시 일반전형 입학생의 5.6%, 수시 지군의 2.4%를 차지했다. 수시보다 정시로 서울대에 더 많이 입학한 것으로, 정시가 확대되면 강남 학생에게 쏠릴 것이라는 관측이 가능하다.

- 이 점은 지난해 2018년, 서울대가 작성한 “서울대학교 정시 모집 확대(안) 검토 결과”에서도 확인된다.

□ 정의당 정책위는 익히 알려진 건국대 최필선 교수와 민인식 경희대 교수의 논문,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여론조사도 소개했다.

- 최필선 교수와 민인식 교수의 논문 “부모의 교육과 소득수준이 세대 간 이동성과 기회불평등에 미치는 영향”은 가정의 경제력 및 부모 학력과 자녀 수능점수의 관계를 보여준다. 상위 소득인 5분위 부모의 자녀는 수능 높은 등급(1~2등급)이 11.0%로, 하위 소득 1분위 자녀의 2.3%보다 5배 정도 많았다. 반대로 수능 7~9등급의 낮은 등급은 각각 21.3%와 40.8%로 저소득층이 많았다.
- 소득과 수능의 관계는 학력에서도 비슷했다. 전문대졸 이상 부모의 자녀는 수능 1~2등급이 20.8%, 고졸 미만 부모의 자녀는 0.8%였다.
- 국책연구기관 한국교육개발원의 2018년 교육여론조사는 수능 확대를 누가 희망하는지 알려준다. 대입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해야 하는 것을 물었더니, 가구소득 높은 응답자는 수능을 꼽았다. 월평균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수능이라고 답한 비율이 38.2%로 가장 많았다. 소득 높을수록 수능 확대를 선호한다는 뜻이다. 반면 200~400만원 소득의 응답자는 특기적성이 가장 많았다(30.4%).

□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“정시수능은 고소득, 고학력, 강남에 유리하다”며,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작년 대입개편을 재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면 “고소득자와 강남에 유리한 정시수능의 확대로 공정성 및 형평성 저해 가능성이 높다”고 지적했다.

- 그리고 “지난해의 공론화 결과인 ‘최소 30%로 확대’를 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”고 밝혔다.
- 22일 대통령의 ‘정시비중 상향’ 시정연설 이후 많은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. 25일 오전에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가 열린다.

[요약]

- ☞ 정시수능은 고소득, 고학력, 강남에 유리
- ☞ 정시는 공론화 결과(작년 결정 '최소 30%로 확대')를 넘지 않는 것이 타당

□ (강남 3구와 양천) 정시로 서울대 입학한 학생, 네 명 중 한 명은..

-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의 2019년 보고서 “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대입제도 개선방안 연구”
- 2016~18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입학생 중에서 서울 강남 3구와 양천구 학생이 24.5% ⇒ 사교육 밀집 지역
- 강남구 학생은 다른 지역보다 많이 정시로 서울대 입학

“... 강남구에서만 지난 3년간 347명이 서울대학교에 정시로 입학한 반면 인구 규모가 가장 큰 광역시인 4대 광역시 합격생을 모두 합해도 325명(대구 105, 부산 91, 광주 56, 대전 73)에 불과하다는 통계를 얻을 수 있다. ...”

- 보고서 66쪽

□ (강남) 서울 강남구, 수시보다 정시로 더 많이 서울대 입학

- 민주당 박경미 의원의 2019년 국정감사 자료.. 서울대 제출자료 기반
- 2017~19학년도 서울대 입학생(최종 등록자 기준)을 보면, 입학생의 6.5%는 서울 강남구 소재 학교의 학생이며 전국에서 가장 많아.
- 특히, 정시(11.9%)가 수시 일반전형(5.6%)이나 지균(2.4%)보다 많아

	전체	정시	수시	
			일반전형	지역균형
서울 강남	6.5%(1)	11.9%(1)	5.6%(2)	2.4%(2)

* 박경미 의원 2019년 10월 2일 보도자료 재구성(괄호 안은 시군구 내의 순위)

** 표 읽기 : 최근 3년간 정시 입학생의 11.9%는 서울 강남 학생이고, 전국에서 가장 많아

□ (경제력) 수능은 고소득 고학력 가구일수록 높은 등급

○ 최필선 민인식의 2015년 논문 “부모의 교육과 소득수준이 세대 간 이동성과 기회불균등에 미치는 영향”

* 최필선 건국대 국제무역학과 부교수, 민인식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

** 한국교육고용패널(KEEP)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연구

○ 고소득층의 자녀가 저소득층보다 수능 높은 등급이 5배 가까이

- 소득 5분위 부모의 자녀는 1~2등급 11.0%, 1분위 자녀는 2.3%
- 반대로 1분위 자녀는 7~9등급 40.8%로, 5분위(21.3%)보다 2배 가까이



○ 고학력의 자녀가 저학력보다 수능 높은 등급이 26배

- 전문대졸 이상 부모의 자녀는 1~2등급 20.8%, 고졸 미만은 0.8%
- 반대로 수능 낮은 등급(7~9등급)은 고졸 미만이 고학력보다 3배 넘어

	7~9등급	5~6등급	3~4등급	1~2등급
고졸미만	54.0	34.3	10.9	0.8
고졸	41.4	36.1	17.6	5.0
전문대졸 이상	16.6	29.8	30.5	20.8

□ (시뮬레이션) 정시 확대하면 서울대에 강남은..

- 서울대학교의 2018년 문건 “서울대학교 정시모집 확대(안) 검토 결과”
 - * 2018년 5월 10일자 모 언론의 보도
- 2018년 지원자 데이터로 정시 40%와 50%로 늘릴 경우를 각각 살펴보니, 정시 50% 되면 강남 3구 학생이 169명에서 310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
 - ⇒ 강남 쏠림 심화

□ (여론) 정시 확대는 고소득층이 더 많이 원해

- 국책연구기관 한국교육개발원의 2018 교육여론조사(KEDI POLL 2018)
- “다음중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” 질문에 월평균 600만원 이상은 수능 성적을 꼽아

		수능 성적	내신 성적	특기 적성	인성 및 봉사활동
월평균 가구소득	200만원 미만	24.9	7.8	28.6	23.0
	200~400만원	23.6	9.8	30.4	23.9
	400~600만원	29.7	12.2	26.5	20.6
	600만원 이상	38.2	13.5	21.0	20.5

* KEDI POLL 2018, 434쪽 표 재구성

□ (반응) 메가스터디 주가

- 대통령 연설 당일 11시경 부터 큰 폭으로 상승. 등락 반복하다가 1만 2천 300원 - 전날보다 6.49% ↑
- 이날 한 때 1만 3천 450원 (16.45%)까지 오르기도
- 거래량 256만주로, 전날의 65.53배



□ (작년 결정) 정시는 가만히 두어도 확대 예정

- 지난해 2018년 8월의 대입 개편으로 '최소 30%로 확대'
 - 올해 치르는 대학입시('20학년도) 22.7% → 내후년 '22학년도 최소 30%. 수시에서 이월되는 경우까지 합하면 35% 안팎으로 예상
 - * 내년 '21학년도 입시는 수능 20.4% 포함하여 정시 23.0%
 - 정시 적었던 서울의 일부 대학도 확대될 듯
 - * 지난해 대입 개편은 공론화라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친 것
- 대통령 시정연설이 이를 재확인하는 것이라면 이해되는 범위
 - 만약 그 이상이라면 안타까운 상황 ⇨ 고소득자와 강남에 유리한 수능의 확대로 공정성 및 형평성 저해 가능성 높음

※ 지난해 대입개편의 '최소 30%'가 유지되는 형태가 타당

입시제도는 변화 적고 안정적일 때 수험생에게 좋음

수시의 급격한 증가도, 정시의 급격한 증가도 좋지 않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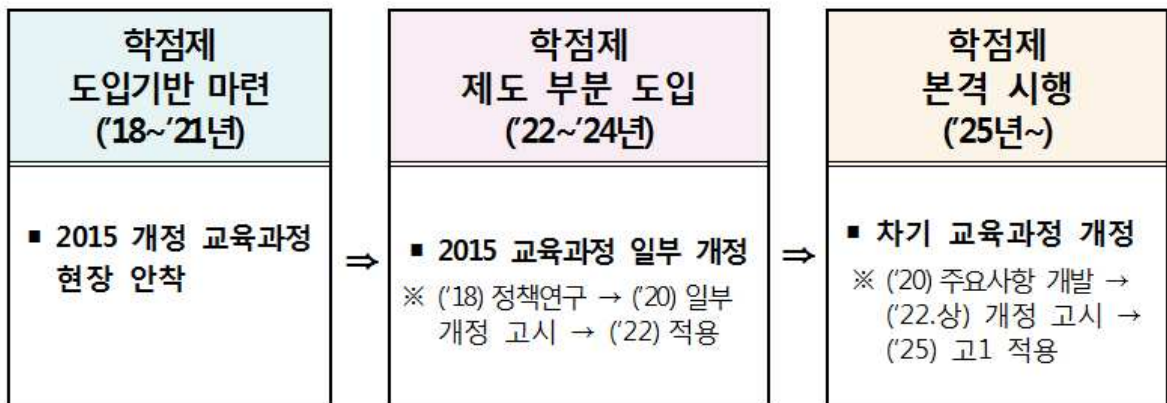
지금은 정시 '최소 30%로 확대'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살필 때

[요약]

- ☞ 대통령의 '정시비중 상향' ⇒ 핵심 공약 고교학점제와 정면으로 배치
- ☞ 정시 확대는 한 줄 세우기 획일성 ⇒ 다양성 키우는 미래교육과 충돌

□ (고교학점제) 핵심 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

- 달달 외우는 수업, 획일적인 교육, 한 줄 세우기 시험에서 벗어나 미래에 적합한 학교로 바꾸려는 정책 ⇨ '교실혁명으로 공교육 혁신'
- * 창의력, 문제해결력, 협동 및 공감 능력, 비판적 사고력 등 미래핵심역량 함양
- 학생이 특기 적성 흥미에 따라 수업 듣는 맞춤형교육 + 그 결과로 대학 진학
- 현재 기반 준비 중이며, 2025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



* 당초 2022년 본격 시행이었으나 3년 늦춘 상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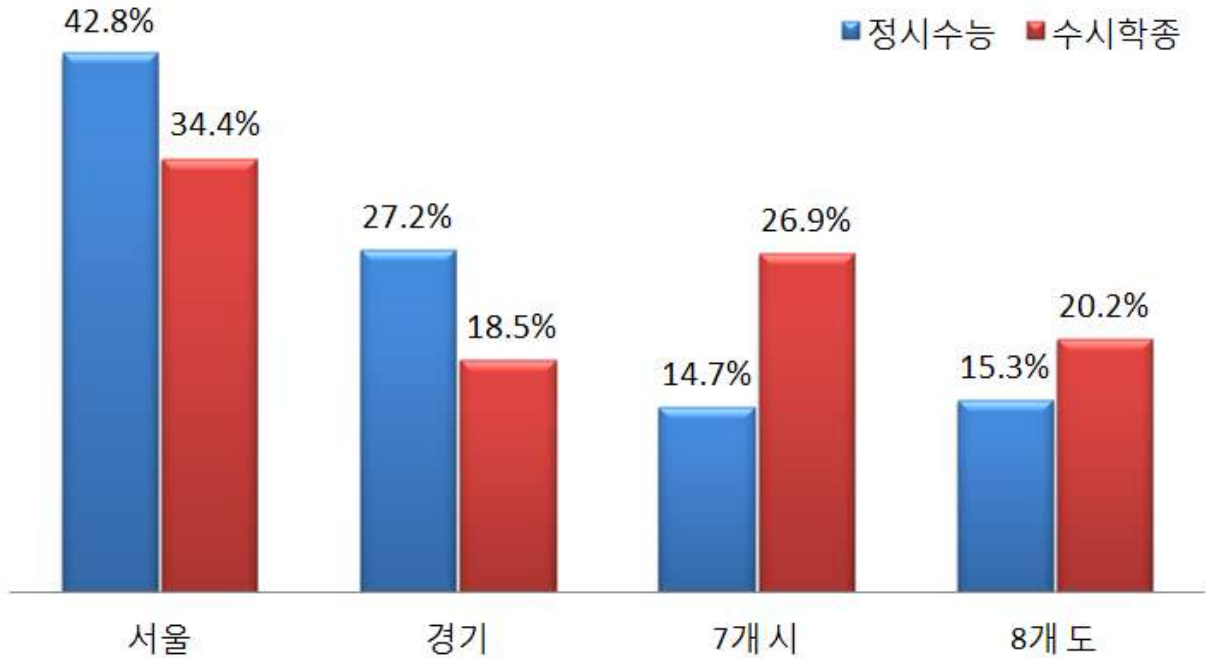
□ (정시 확대) 고교학점제와 배치

- 정시수능 확대는 한 줄 세우기 획일성으로, 다양성과 충돌
- 미래교육을 염두에 두고 추진 중인 고교학점제와 배치

※ 한 줄 세우기 수능으로 고교학점제와 미래교육은 어불성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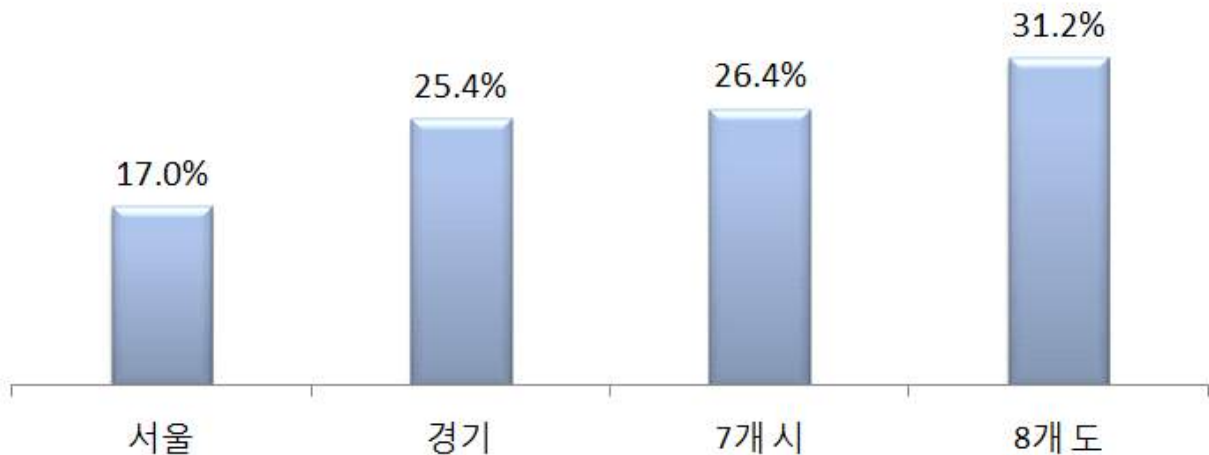
이런 상황에서 <정시 확대> 되면, 어떻게 되나요?

올해 2019년 서울대 입학생



* 서울대 제공자료 재구성, 최종등록자, 고교 소재지 기준(해외 소재고, 검정고시 제외)
정시수능과 수시학종 외에 정시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(7명 내외, 정원외) 있음.

올해 2019년 2월 고교졸업생



* 7개 시 : 부산, 대구, 인천, 광주, 대전, 울산, 세종
8개 도 : 강원, 충북, 충남, 전북, 전남, 경북, 경남, 제주